

1985

1 기

경희대

학생회

전

국



여

대

생

대

표

자

협

의

회

총

회

□ 통일원년 4월 29일 - 30일

◆ 자주경희대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립니다.

1 기

전

국

여

대

생

대

표

자

협

의

회

총

회

▣ 통일원년 4월 29일 - 30일

◆ 자주경희대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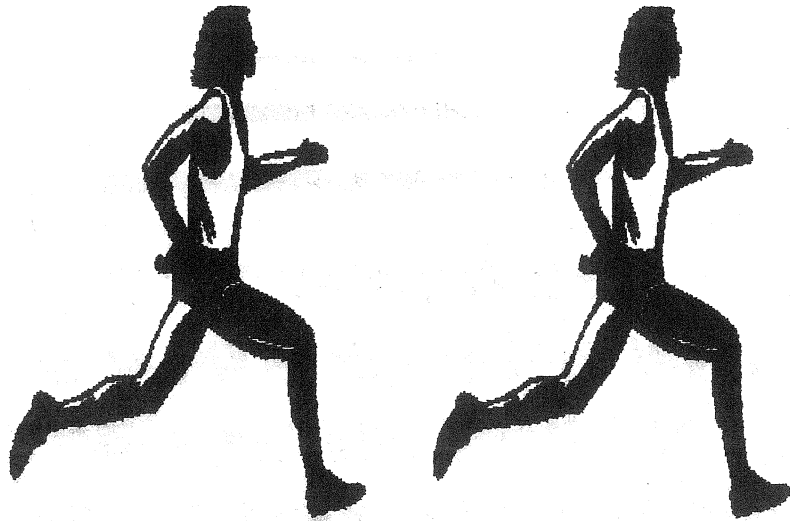
들끓는 동해 바다 그 너머
분홍살 간지르는 봄바람 속에서
실실한 씨앗들이 말라가고 있을 때
노기찬 태풍들의 물러와
산준령 뿌리 다 뽑히고 뽑힐 때
시퍼런 눈썹 같은 포도알 이죽이며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 사람아.

속이라도 비어 있는 빈병들을 위하여
혼이라도 비어 있는 바보들을 위하여
눈 귀 비어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빈 바람 응웅대는 민둥산을 위하여
언 강 하나 끌고 가는 순교자 위하여
아픈 심지 돌우며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 사람아.

(중략)

잠든 메시아의 봉창이 달기고
대지는 흰 눈을 뒤져서 쓰고 누워
작은 길 하나까지 물어버릴 때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 사람아,
그의 흰 주의(周依)는 분노보다 진한
주홍으로 물들고 춤추는 발바닥 포도 향기는
떠서 여기저기 푸른 하늘
갈잎 위에 나부기는 소리 누군가는 듣고 있구나

-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 부분 고정화



□ 글을 신는 순서

여는 시
L

인사말(임시의장)
L

축사
L

대표자 대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L

전여대협강령과 규약
L

1기전여대협 창노선
L

대표자 명단
L

민족사적 대 전환기!

**주체의 의지로 50만 여학우와 함께하며
2천만 여성의 모범으로 우뚝설 것을
전여대협의 건설 선봉에서 다짐합니다.**

기쁩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가 이제 건설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저의 가슴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지난 전여대협의 건준위 활동을 통해서

전여대협의 건설을 논의 하였던 우리 선배언니들은
전여대협의 건설의 역사속에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셨는지.

우리는 피와 땀을 조국의 통일과 여성해방 투쟁에
바쳤던분들의 투쟁역사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전여대협을
강화해 내어야 합니다.

이제 전여대협은 우리 여학우들의 튼튼한 조직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며 여학생운동으로 좀더 대중화하며 진정한
인간애방을 고민하는 단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준위 의장을 하면서

우리의 운동을 펼쳐왔던

저 자신에게 많은 반성을 해 봅니다.

여학생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
못했던 나의 운동적 사고방식과 실천방식을 이제는 과감히
벗어던지고서 1기전여대협의회장으로서 이론과 실천을 자신의

삶에 녹아내는 그런 여학생운동을 하는

한반도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통일원년 대표자총회날

1기입시의장

경희대 총여학생회장 이선희

축사

정태홍(제3기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전여대협 창립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생의 봄향기는 아무나 풍길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남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에 대한 자각과 여성의 정치적 및 제바느이 권리의 쟁취가
곧 모든 사람을 해방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진실입니다.

50만 여학우들의 심장을 울리고 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통해
백만의 사랑을 추구하는 전여대협.
여러 역경속에서도 이제 준비위라는 형식을 깨고
공식적으로 창립을 선언하는 것은
전체 운동의 합법칙적 발전과정이며 역사적 성과입니다.

조직 형식의 발전이 그 내용과 대중성 확대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으며
보다 한총련의 강화에 중대한 몫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이 아름다운 대학시절에 전여대협 일꾼들로부터
풍겨오는 인생의 봄향기가 온 한총련에 가득하고,
한총련 백만학우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전여대협 창립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사

김난희(3기건준위대표 91년조선대학교총여학생회장 88)

전여대협의 건설을 축하드리며..

하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으로서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이땅의 청년여학우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냅니다.

95년의 5월이 94년의 5월과 다르고 오늘의 모습이 결코 어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이 오늘의 희망찬 전여대협의 건설 또한 지난 역사 속에서 온몸으로 앞장섰던 선배들의 우렁찬 함성으로 함께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조국이 갈라져 있고 지역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 분할되어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조차도 이땅에서는 차별과 억압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이 진정한 인간으로 설 수 있을때 남성 또한 진정한 인간으로 시계를 개조 변화시키는데 함께 복무해 갈 수 있습니다.

「전여대협 건준위는 87년 민주화 열기속에서 이땅 여성들의 불평등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여학우들로부터의 각성으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결성한 것입니다. 비록 청년학생 운동속에서 부문운동으로 자리 잡아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어떠한 부문운동보다 인간 존엄성 자체를 차별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 부터 출발했기에 보다 큰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지역별 여대협을 건설했습니다. 출범식때의 사수대, 범민족대회와 민족통일 여학생단, 각 지역별 자매결연, 미군범죄 규탄,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전국적인 성폭력 규탄대회, 일상 복지사업등 전여대협(건) 차원의 통일적인 사업을 내실있게 장기적으로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기층단위로부터 조직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속에서 지역여대협의 내용을 강화시켰습니다.」

지난날에 모범적인 학교, 지역을 발굴하여 전파시켜 나가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면 전여대협 건설을 맞이하는 지금은 지역 여대협 강화를 기반으로 전여대협 안으로의 단결된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 생각합니다.

95년 민족사적 대전환기는 청년여학우들에게도 더욱 새로운 해로 각인될 것입니다. 전여대협 건설의 열기로 지자체 투쟁과 통일투쟁에서도 주체적으로 힘차게 내달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선배들이 못다한 전여대협의 건설을 해낸 후배 여러분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전여대협이 50만 여대생의 구심으로 우뚝 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열심히 투쟁하십시오.

축사

유미영(92년 전여대협(건)부의장, 서여대협의장 89)

반갑습니다.

저는 92년 전여대협 건준위 부의장입니다. 전여대협 건설이 그리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서도, 정말 밤낮없이 고민하고 준비했었냐고 누가 묻는다면 자신있게 대답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건설! 그 이름을 다시 불러보는 지금, 몇해 전 까지만해도 주위 동지들과 전여대협 건설을 하기 위해 애를 쓰고 힘들어 했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아직은 내용이 준비되지 못했느니, 의장만 있는 전여대협이 무슨 소용 있겠느니.. 따뜻한 격려보다는 막연한 주위동지들의 비판이 먼저 가슴을 찢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지역(서여대협)조차 모아내기 힘든 실정이었구요.

그래도 가끔씩 여대협동지들에게 항상 미안하다며 폭 넓게 고민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는 간부들도 고마웠습니다.

많은 사회문제속에서 '여대생'이라는 특권만 누리기 보다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작은힘이지만 함께 모으려고 했던 92년 여름 '보은 진관 무죄석방투쟁'속에서 '전여대협'이 모이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여대협 건설의 첫걸음은 50만 여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쉽게 쓰러지지 않고 언제나 '구심'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게 투쟁했던 기억이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체계는 더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체적질이 되어 준답니다. 다시 한번 50만의 구심으로 여학생운동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갈 전여대협의 창립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뛰고 있을 후배동지 여러분! 힘 내세요. 그리고 열심히 투쟁하십시오.

축사

전우섭(목사,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악수를 청합니다.

1995년 조국분단 50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모든 사회운동이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분단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의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그리고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천으로 1995년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45년 9월 8일 인천항에 미군이 첫발을 내디딘 이래로 주한미군은 온갖 특혜를 누리며 이땅에서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무시와 멸시로부터 비롯되는 잔혹한 미군범죄, 임대려 한푼 받지 못하고 강제로 징발당한 우리땅 미군기지, 무차별 군사훈련으로 인한 막대한 인적 물적피해, 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군PX불법유출을 통한 거대한 암시장의 형성, 미군부대 한국인 노무자들의 노예화, AIDS, 마약, 음란물 등으로 대표되는 퇴폐저질문화의 유포, 이런 것들에 의해 우리 민족과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희생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민족은 더이상 당하지만은 않습니다. 윤금이씨의 처참한 죽음을 통해 우리는 뼈아픈 민족주권에 대한 뼈아픈 각성을 하였으며, 많은 사회단체와 국민들이 민족적 분노를 모아 잔혹한 살해미군을 다노지하고 민족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호모에스페란스, 즉 희망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민족의 주권을 완전히 찾는 그런 희망, 이런 희망을 품고 우리는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여대협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회단체가 모여 연대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여준 청년학생, 특히 여대협이 헌신성과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영기와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때마다 소외당한 '기지촌'의 문을 두드리는 여학생 일꾼들의 눈망울에서 민족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대협과 함께하는 운동본부는 늘 든든합니다.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가 이제 '건준위'의 꼬리를 떼고 정식 출범을 하는데 대해 축하와 함께 뜨거운 격려를 보내며, 50만 여대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진정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의 환한 웃음이 가득 피어나는 해방의 그날을 위해 매진하는 전여대협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는 소중한 새날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전여대협 회의 진행 세칙

1. 회의 진행의 원칙

1)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한다.

(단, 중앙집행위 인준, 회원 징계 등에 관한 것은 비공개 할 수 있다.)

2)정족수의 원칙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 정족수로 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사고 처리는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3)일(一)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지 않는다.

4)발언자유의 원칙

5)다수결의 원칙

6)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7)일사부재의 원칙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번안(표결심의의 동의)을 사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번안상정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8)회의 불계속의 원칙

회기 중에 처리되지 못한 의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러지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단, 필요한 경우 기한부 연기동의에 의해 다음 회기로 이월할 수 있다. 기한부연기동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안건 채택 방법 및 회순 통과

1)대표원대회 안건 상정은 중앙상임위원회 안 외에도 대표자의 1/10이상의 연명(규약 제 18조-발의)으로 한다.

2)안건 채택순서에서 원안에서 대한 삭제동의안은 찬반토론 없이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의 순서가 끝난 후에 있어서의 회순변경은 찬반토론없이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 의사진행과 관련되 규칙

1)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다.

2)발언시 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먼저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다.

3)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사진행 요원에게 신청하고 발언 신청자 중 찬반 일인씩을 의장이 지명한다.

4)발언시간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각 안에 대한 제안설명(발제) 및 토론

- 질의 답변 및 보충 토론 : 5분 이내

- 의사진행 발언 및 기타 : 3분 이내

단 발언시간에 대한 조정을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의장의 제안에 의해 출석 인원 1/2의 찬성으로 조정할 수 있다.

5)발언자의 수는 의장의 제안으로 참석 중앙위원 1/2이상의 찬성에 의해 제한한다.

6)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고 중앙상임위원들로 구성된의사조정 위원회를 열어 조정한다.

4.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 순서

ㄱ. 원안만이 상정되었을 때

1) 안건상정 2) 안건발제 3) 질의 및 응답 4) 토론 5) 표결(안건의 성격에 따라 표결할 안건과 결의할 안건을 구분할 수 있다.)

단, 의사수렴과 토론 속에서 수정안의 '의사조정위원회'에 의해 조정되면 그에 대한 표결을 한다.

ㄴ. 원안과 다른 안이 상정되었을 때

1)안건상정 2)원안에 대한 발제 3)질의 및 응답 4) 다른 안에 대한 발제 5) 질의 및 응답 6) 원안과 다른 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여부를 논의(중앙상임위와 다른 안 제출자와의)하고 수정안이 작성될 경우에는 즉시 표결에 들어간다. 7) 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은 때에는 찬반토론을 한 후에 8) 선택 표결을 한다.

5. 그 밖에 의사진행 규칙을 일반적 회의 진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강령 및 규약

○ 전여대협 전문 ○

사람들의 페미니즘

전여대협은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봉건적 사상과 자본의 지배논리를 타파하고 여성의 자주성 실현으로 인간해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50만 여학도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전여대협은 일제식민지 치하의 여성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여사상}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역사의 주인인 청년여학생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성해방을 실현한다.

● 전여대협 강령 ●

강령과 규약의 합의의 과정이 중요하다. (사상 일치가 어려웠을 것인데...)

1. 여성의 성침탈에 앞장선 미국과 일본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민족자주권을 회복하여 여성의 자주화,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1. 이천만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의 걸림돌과 비민주적인 요소를 척결하고 국민들의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한 사회민주화를 실현한다.

1.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조국을 통일한다.

1. 학원내 온갖 반민주적, 반민족적, 성차별적 교육과 제도를 반대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여 학원 자주화를 이룩한다.

1. 여성농민, 여성 노동자, 체반 애국적 사회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공동 투쟁한다.

90년대 중반 영태이론의 급진주의 (총리대중성) 활동은 각박하지만 이보다 앞서, 이 때부터 관심이 높은 장안애국투쟁이라는 2022 동아 30여 년이 만감이 가득한 것은 여성분자가 이노건 같다.

합동의 배움이 있어 개인들의 '정치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업이 있다.

1.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 문화와 소비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학원과 생활속에서 건강한 민족, 민중적 문화를 일구어 나간다.

1. 50만 여학도가 앞으로 사회에서 민족증흥과 조국발전의 당당한 주체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기위한 학문의 습득과 단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1. 백만청년학도와 통일단결하여 투쟁한다.

◎ 전여대협 규약 ◎

◆ 총 료 ◆

▶ 전국여대생대표자협회의의 규약은 강령적 요구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전국여대생대표자협회의의 규약은 전국여대생대표자협회의(건)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민주집중의 조직운명을 기반하는 원칙과 규율이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전국여대생대표자협회의(약칭:전여대협)이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전국 오십만 여학도의 통일과 단결을 기반으로 여학우들의 학문,생활, 투쟁적 요구를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 실현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한다. 나아가 보다 높은 단결을 위해 전국총여학생회연합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의 강령에 근거하여 대표자총회에서 사업의 내용을 결정한다.

제 2 장 조직의 구성

제 4 조 (회원규정)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국 각 대학 총여학생회, 여학생대표조직으로 한다.

~ 시대 방향 X

제 5 조 (구성체계) 본회의 체계는 전국단위 체계, 지역단위체계, 지구단위체계,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 단대 여학생조직, 과 여학생조직을 가지며 본회 산하에 7개 지역, 1개 특별지구를 둔다.

- 1) 지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으로 구분한다.
- 2) 제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특별지구로 구분한다.
- 3) 각 지역은 지역 실정에 근거하여 그 지역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지구의 구성과 분화 또는 통합을 할 수 있다. (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최종인준을 받는다.)

제 6 조 (가입과 탈퇴)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합동권은 당연적

- 1)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 단위로 한다.
- 2)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 단위의 최고의 사결정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지역, 지구체계의 가입과 탈퇴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제 3 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 7 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의 모든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개진권, 결정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 8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사수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강령과 규약의 실현, 결정사항의 집행, 보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9 조 (포상 및 징계)

본회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조직의 체계와 운영

제 1 절 대표자 총회

제 10 조 (지위) 대표자 총회는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제 11 조 (구성)

- 1) 대표자 총회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 회장(기타 여학생대표조직의 대표자)으로 구성한다.
- 2) 부득이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각 지역 의장의 승인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제 12 조 (권한) 대표자 총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본회의 강령과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
- 2) 본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 3)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 인준, 의결을 한다.
- 4) 본회의 의장탄핵권을 가진다.
- 5) 조직의 해산을 결정한다.
- 6) 기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 7) 위의 권한 중 강령의 제,개정, 규약의 제,개정, 의장선출 및 탄핵, 조직의 해산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은 대표자총회의 결의로 중앙상임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정기대표자총회와 임시 대표자총회)

- 1) 정기 대표자 총회는 1년에 1회로 중앙상임위원회가 개최한다.
- 2) 임시 대표자 총회는 의장, 중앙상임위원 1/3이상, 대표자 1/4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정기 대표자총회의 회기는 3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임시 대표자총회는 매년 당 2회 이내로 하며 회기는 2일을 경과할 수 없다.
- 4) 정기 대표자총회는 정기 대표자총회 30일전에 공고하며, 임시총회는 임시총회 1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등을 명확히 하여 공고한다.

제 2 절 중앙상임위원회

제 14 조 (지위)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의결기구이다.

제 15 조 (구성) 중앙상임위원회는 의장과 7개 지역의장으로 한다.

제 16 조 (권한) 중앙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전체 활동을 관장하고 대표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 지도하고 책임을 진다.

- 2)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집행간부를 임명한다.
- 3)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총회를 개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
- 4)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한다.
- 5) 규약이나 시행세칙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 6) 본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제 17 조 (운영) 중앙상임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 및 중앙상임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

제 3 절 의장

제 18 조 (지위) 의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제 19 조 (권한) 의장은 본회 전반에 관한 지도와 관리를 한다.

제 20 조 (선출) 의장은 대표자총회에서 선출하고 선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 (단,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시에는 중앙상임위에서 의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제 21 조 (임기) 의장의 임기는 당해 대표자총회로 부터 다음해 중앙상임위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제 4 절 중앙정책위원회

제 22 조 (지위) 본회의 정책 연구, 생산단위이다.

제 23 조 (구성) 정책위원장과 정책위원(각 지역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24 조 (역할)
- 1) 정책과 노선을 연구 생산한다.
 - 2) 본회 정책사업 전반을 총화한다.
 - 3) 중앙상임위원회를 보좌한다.

제 5 절 임시체계

제 25 조 (지위) 임시체계는 전기의 사업과 체계에 대한 계승과 혁신사업과 당기 대표자총회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이다.

제 26 조 (임시의장) 임시체계는 중앙상임위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 27 조 (의결체계) 임시체계의 의결집행체계의 지위와 운영은 정식체계로 규정하며 규약에서 정한 바 모든 권한을 가진다.

- 제 28 조 (사업) 1)계승과 혁신사업을 수행한다.
2)해당시기 일상전반 사업을 수행한다.
3)대표자총회를 준비한다.

제 5 장 재정

제 29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당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로 한다.

기여하는 50%

- 제 30 조 (회비)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정기회비는 각 학교 학생회비의 2%로 한다.
2)특별회비는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편성하며 각 지역(지구)별 또는 각 학교별로 납부한다.

제 31 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중앙상임위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에서 관리한다.

제 32 조 (예산과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대표자총회에서 심의, 인준, 의결한다.

↳ 강사의 명제

제 33 조 (회비관련 징계) 본회의 회비와 관련된 징계는 시행세칙을 두어 정할 수 있다.

제 6 장 시행세칙

제 34 조 (시행세칙) 본회의 시행세칙은 본회의 필요에 따라 대표자선출, 선거, 포상과 징계, 특별기구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약에 근거하여 둘 수 있다.

제 7 장 상벌

제 35 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 36 조 (징계)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직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자격정지, 직위해제, 공개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 37 조 (회의 성립) 모든 회의는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38 조 (의결) 제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난. 단 탄핵이나 강령의 재개정, 조직의 해산에 있어서는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9 조 (표결) 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단 출석인원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 (효력발생) 대표자총회의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규약의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절차 및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제정) 본 규약은 1995년 4월 30에 제정한다.

시행세칙1 - 대표자의 선출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대표자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둔다.

제 2 조 (대표자) 본회의 대표자는 각 학교 총여학생회장(기타 여학생대표조직의 대표자)으로 한다.

제 3 조 (위임권 행사)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각 지역의장의 승인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시행세칙2-선거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본 시행세칙은 본회의 의장 선출을 위해 둔다.

제 2 조(선거방식)본회의 선거방식은 보통,비밀,직접,평등으로 한다.

제 3 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의 대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2 장 선거 관리 위원회

제 4 조 (구성)

1) 본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중앙상임위원에서 중앙상임위원 1인을 선관위장으로 선출하고 대표자중 3인으로 한다.

2) 본회의의 선관위는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구성한다.

3) 본회의의 선관위는 선관위장의 선임에 따라 사무, 홍보, 행정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4) 본회의의 선관위는 선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행세칙에 근거한 기술실무적 협의를 위해 선관위원장과 후보간의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 5 조(목적) 본회의의 선관위는 의장 선출을 공정,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장을 중심으로 오십만 여학우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6 조 (업무와 권한)

1) 본회의의 선관위는 상기 제5조의 목적 실현을 그 업무로 한다.

2) 본회의의 선관위는 상반기 정기 총회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반기 정기 총회의 중상으로부터 선거인 명부 확인 절차를 가진다. 후보자 추천은 총회에서 확인된 선거인 명부에 명시된 자로 제한한다. 단, 투표시(대표자총회)까지 선거인 명부 추가 확인을 통해 투표권을 인정한다.

3) 본회의의 선관위는 일반 사무경비를 제외한 포스터 자료집 등 각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보좌하는 제반 경비를 공탁금으로 받는다. 이 재정은 선관위장과 선거본부장들 간의 협의회의를 통해 관리하며 대표자총회시 보고한다.

제 7 조(업무와 권한의 정지) 본회의의 선관위는 의장 선출과 동시에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되며 즉시 해체한다.

제 3 장 의장선출

제 8 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1) 본회의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본회의의 대표자원 중 간선직 대의원은 추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회의의 대표자 중 간선직 대의원과 지구여대협 이상의 중앙집행간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 회의, 문건)

제 9 조 (후보자 및 입후보자의 자격)

- 1) 본회의 의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다.
- 2) 본회의 의장 입후보자는 추천서(대표자 중 1/3의 추천), 자천서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1인 이상의 후보출마시 대표자는 복수추천을 할 수 있으며 복수추천을 한 경우 중앙선관위는 해당 대의원이 복수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다.

제 10 조 (선거공고)

- 1)본회의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선거일 5일 전까지 본회의 회원에게 후보자를 통보한다.
- 2)본회의 선관위는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선거공고를 내도록 한다.

제 11 조 (선거본부구성) 본회의 의장 출마자는 지역여대협의장의 자격을 갖는 대표자를 선거본부장으로 하는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12 조 (선거운동 및 유세)

- 1)각 후보자는 선관위의 지휘하에 선거운동 양식을 협의하여 전개한다.
- 2)각 후보자는 대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각 지역선관위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3)선거유세는 대의원대회에서 1회 30분이내로 하며 정책공약집 발간 등 기타 선거운동은 선관위와 선거본부의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

제 13 조(당선결정)

- 1)본회의 의장 선출은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3)단독출마의 경우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 14 조 (보궐선거) 의장이 탄핵되었을 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의장의 임기가 6개월이상 남아있을 시에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선관위의 주관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995

1기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총노선

■ 전여대협 건준위 결성 이후 전여대협 활동 평가

89년 결성된 전여대협은 95년도에 이르기까지 취업차별 철폐투쟁, AIDS 추방운동, 보은진관 투쟁, 윤금이씨 살해 미군 처벌투쟁, 또한 양애리 학우 구명운동을 등 많은 투쟁을 해왔다. 이러한 투쟁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모순이 지점들의 지적해 내면서 여성문제를 대중적으 인식하게 하는 성과점도 가져왔다.

1989년 2월, 1990년도 (서여대협)

그러나 이제까지의 전여대협건준위는 여학우라는 주체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회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기에도 많은 역량이 부족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회적인 제도의 개혁투쟁을 진행하면서 여학우 대중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다.

건준위에서부터 자주적 투쟁이나 여학우 대중운동의 고민, 한계성 고민.

또한 여학생운동의 이제까지의 역사는 학생운동의 역사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전투적 학생회가 제기되면 전투적 여학생회가, 자주적 학생회가 제기되면 자주적 여학생회론으로 또 한층련이 출범하면서 제기한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가 나왔을때는 여학생회의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고민했다. 전체 학생운동 판에서 우리는 여학우들의 특수한 이해와 요구를 간과한 채 학생운동의 노선, 학생운동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여학생운동의 실정에 맞게 풀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여학생운동은 아직도 해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아직도 여학생운동을 펼쳐나가는 구조에 있어서 회, 부, 위원회의 체계가 맞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여대협 건준위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받아 앉으면서 전여대협은 명실상부한 여학생운동의 지도 조직으로 우뚝 서야 하는 것이다.

● 전여대협의 건설의 요구

여학생운동은 전국적으로 약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학생운동은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여학생운동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부의 재생산, 간부들의 단련, 학우대중의 여학생회의 이해도 떨어짐 등 너무나 많이 있다.)

건준위 상태로 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여대협이 이를 바로 입증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각학교가 가개격파식으로 여학생운동을 해서는 발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약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학생운동은 그 역사에 비해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아직도 여학생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바쁘고 여학생회 상층 간부조차도 여학생운동의 발전전망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의 정체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많은 학교가 아직 단대에 회단위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항상 적은 수의 집행부와 함께 총단위의 일년 사업을 치루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재 여학생운동의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는 더이상 이 사회에서 인간해방을 이룩하는 운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없다.

이에 올해 전여대협의 건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전여대협의 건설로 여학생운동의 발전전망과 많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들을 해명해 내면서 여학생운동은 이 사회의 대안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어야 한다.

이러한 여학생운동의 과제를 해명할 수 있는 단위는 전여대협이다.

전여대협은 전국적인 단위로서 아직은 활동이 미약하지만 그 위상과 역할을 높이면 여학생운동의 전망을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단위이다.

그 근거는 이러하다.

첫째, 전국을 포괄하기 때문에 좀더 높은 수위의 인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모색할 수 있는 질높은 논의가 보장됩니다.

둘째, 전국의 모범이 이곳으로 모이고 그 모범이 다시 기층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속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해서 올바른 지점을 논의 할 수 있는 끼리를 인입받습니다.

여학생운동은 여학운이 삶의 처지에 기반한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화 과정속에서 여성으로 길들여진 여학우들에 대해 현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순의 양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와 조사가 선행되어야만 모순의 고리들을 찾아낼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운동의 사상적인 해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여대협의 위치는 좀더 올바른 운동을 고민하고 우리의 최우선의 과제인 여학생운동을 사상적으로 풀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위인 것이다.

- ① 강의의 바깥으로의 내용 풍요.
 - ② 사상의 과잉으로 흥남선의 영계다움.
 - ③ 처연하게, 정겨우게, 뜻깊게 얘기하라. ★★★★★ 전여대협 강화
- "동기님 아련"

☯ 사상적 노선 ☯

여학우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로 여학생운동의 사상을 밝혀 내자.

● 여학생운동의 사상에 대하여

여학생운동의 역사 속에서 사상을 해명한 것은 자주적 학생회가 대두되면서 이다. 그리고 작년 전여대협과 서여대협에서 여학생운동의 사상을 해명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지만 자주적 여성상에 대한 이야기가 귀결되지 못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끝나고 이월사업을 통해서도 많은 것이 이월되지 못하고 올해에 있어서 여학생운동의 사상을 해명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적극적으로 제기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상을 해명하기에 앞서

우선 여학생운동의 사상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한국 여대생들의 처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어야 하며 남한 전체 여성과 여대생은 어떠한 차별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내어야 한다.

◎ 현재 여대생의 모습은 어떠한가?

1.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학의 위상은 무엇인가?

대학의 본래의 기능에 대해 두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이 시대 지성인을 키우는 곳으로서의 역할, 즉 미래를 책임질 주체를 키워내는 장이다. 둘째는 대학은 미래사회의 상을 연구는 장이다. 다시말해서 미래를 책임진다. 그런데 미래의 상은 현실인식 없이 저절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현실인식에 기반한 적극적인 사회개조에로의 참여가 진정한 미래를 낳는 것이다. 즉 미래는 현실의 인식과 주동적 역할(인식과 실천)을 담보로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논조가 대학생의 특권의식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여대생의 경우 중산층의 성격이 많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여학우들의 현실은 대량 산업 예비군과 전업주부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실정이다. 결코 특권이 보장된 핑크빛 인생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여학우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초점을 대학의 위상에 대한 두번째 다락에서 이야기되는 현실인식에 맞추어 보자. 그리고 청년여학우의 건강성(특권의식이 아니라 책임의식이 고 정의 감인)에 주목해보자. 그러면 기존 여성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여학운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기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펼쳐져 온 여성운동은 중산층 여성운동의 경향이 짙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사회전체적인 모순과 성모순의 고리를 명확히 규명해 내면서 그 연관성 속에서 운동을 펼쳐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운동하면 통크지 못하고 본질을 파헤치지 못하는 일종의 권인운동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무리가 아닌 것이다. 아울러 여학생운동도 내용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한계속에서 성모순만을 이야기하는 인상을 주어 왔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성모순을 자본주의와 밀접하고 자본주의 가면은 분단모순을 등에 지고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때문에 여학운의 좌표를 좀더 자신있게 이야기 하면서 시각을 소외된 여성들의 삶에 돌리도록 하는 건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위적인 선언으로가서가 아니라 민중연대영역에서 구체적인 계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이런
의의
있지
않다?

2. 우리 여성들의 현실은 어떠하며 긍정성과 건전한 상은 무엇인가?

주부들의 경우 가정에 고립되어 사회성을 경험하기 힘들뿐 아니라 통일적 견해를 갖기 어렵다. 또한 자신을 잃어버린채 남편과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자아실현인 양 살아가다가 어느 날 불현듯 방향이 시작된다. 직장여성들의 경우 우선 끝까지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또한 가사노동의 2중적 부담속에서 항상 불안하고 피곤하다. 직장내에서는 여성의 이러한 처지에 대해 굶지 않은 시선이고 성희롱과 성폭력의 위협(더우기 2중적 성규범이 지배하고 있는)에 시달려야 한다. 집에서도 주변사람들은 직장보다는 가정을 우선으로 하기를 요구한다. 별다른 배려 없이 그저 여자가 수퍼우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조건속에서도 여성은 단결하여 주인으로 서서 주체적으로 문제를 불어나가기 어려운 현실이다. 2중 부담과 아울러 앞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은 끈질기고 더욱 성실하다. 특히 모성이 발동하면 여성은 강해진다. 이 힘이 사회성과 집단성과 결합된다면 여성들의 힘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모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

모성이 발동되면
(긍정성이...)

모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여성의 긍정성 중에서 '성실성'과 '헌신성'을 언급해야 한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성실성과 긍정성은 바로 다음세대의 딸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이러한 여성의 긍정성은 자연이 준것은 아니지만 그 장점을 충분히 살려 사회성과 집단성과 결합시킨다면 여성의 자주성의 체현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자학의 근
 1) 아픈 달
 2) 아픈 달
 3) 아픈 달
 4) 아픈 달
 5) 아픈 달

(건강한 여성의 상)

이 시대의 건강한 여성상은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역사의식과 비판의식로
 깨어 있고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 나가는 여성이다. 여성을 억압는 제도적 인식적이
 모순이 많이 있는 이 사회에서 바람직한 여성상은 자신이 속해 있는 작은 집단에서
 부터 소속감과 능동성을 고양해나가면서 얻게 되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사회성, 집단성이 높아져 갈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 사이에서 갖는 경쟁심
 (여성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군림자의 시각에 길들여져 있는 데에서 오
 는)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자극적 여성상
 ★★★★★ 전여대협 강화
 여성들의 역할
 사회적 역할
 사회적 역할
 사회적 역할

3. 청년 여대생의 역할과 위상은 무엇인가?

청년 여학생은 동정심이 많고 순수하고 정의에 민감하다. 젊은 열기와 피가 끓는 청
 년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다른 여성들보다 패기가 있다. 그러나 여학우들오 대학4년
 을 겪으면서 여성으로서의 질곡을 많이 받게 되고 차츰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상에
 길들여진다. 그러나 여대생은 여성으로서의 질곡을 게 중 가장 적게 받도 있으며 또
 한 그것을 인식하고 자기 삶에 주인이 될 기회도 가장 많다. 그렇다면 이런 청년 여
 학생은 사회에서 대학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여학생은 스스로 인식하고
깨쳐서 미래의 여성상을 세우고 건강하게 사회에 침투해 들어가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여대생중에는 미래의 주부도 있고 전문직 여성도 있고 사무직 노동자도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다른 여성들의 문제를 자신도 겪게 될 것이다. 이 질곡들의 여
 대생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삶이 상당부분
 달라질 것이다. 대학에서는 소모임 속에서 주인이 되려는 노력을 해 나가면서 미래의
 여성상을 자신의 삶에서부터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4. 청년 여학생의 현재의 모습은

오늘날 여학우들은 자본주의의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래도 입학에
 서 신입생일 때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나 여러가지 주 객관
 적인 이유(술자리 문화와 귀가시간의 배치됨, 이제까지의 소극성을 주체적으로 극복
 하기 어려움 등)로 좌절하게 된다. 그리고 보통은 연애를 하게 된다. 2학년 때에는 대
 학생회에 대한 호의도 느껴지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나 한숨을 쉬며 전공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생활속에 소극성
 이 여전히 배어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3,4학년 때에는 취업전선(경쟁)에 본
 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여성을 주체적으로 세우는 데 본질적
 인 문제제기는 하지 못하지만 더 이상 집안에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사회
 에서 진보적인 흐름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학우들은
 경쟁의 논리에 휩싸이고 능력, 능력을 외치며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간다. 인간은 본
 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나 경쟁은 참고 아끼고 자신의 것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관계의 피폐화와

부정적 인생의 개념
 부정적 개념
 다음날의 노력
 전자기의 필요
 불행의 구제

노건

개인주의의 극대화는 어쩌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경쟁은 주변사람을 돌아보는 여유를 빼앗아간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심각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이 욕구불만이 자신의 여인,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 한 두명에 대한 집착으로 표출되어 불안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

한편 여학우들은 대학내에서 왜곡된 연애관에 빠져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대학도 역시 2중적 성규범과 전통적 여성관이 적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내 성차별이나 성폭력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과마다 편차는 있지만 여학우에 대해 경시하고 근거없는 차별의식이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질곡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학우들의 선택은 성실이였다. 성실이야말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신의 영역이다. 또한 줏대 있고 자신있는 여학우가 늘고 있는 것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예전에 비해 정보도 많이 얻는 편이고 진로가 같은 사람들끼리 집단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학우들은 정체해 있고 순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명쾌하게 표면화될 때까지 내부에서 모종의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우들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면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인맥을 중요시 여기고 사회성을 높이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전문직여성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소위 '시집이나'가게 되는 결론에 다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 사상을 해명하기 위하여

여학우들이 인식하는 현실은 자신들의 소극성과, 성실성/오기는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모순이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모순은 또한 총체적이다. 외세와 자본의 유서깊은 가부장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편 여성의 현재 모습은 약자(억압과 질곡에 있는)이지만 여성의 본질적인 모습은 갖아(모든 인간이 자주성을 가진 강자이듯이)이다. 그렇다면 여학우들이 본연의 모습인 강자(여기서 강자란 힘의 세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인 내공, 줏대, 자신감, 자존심등을 말한다.)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해답은 삶의 구석구석의 질곡의 고리들은 창조적으로 찾아내고 극복을 위한 능동적인 도전과 실천속에서 삶의 주인되기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쟁취하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물론 이 사회에서는 혼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없다. 즉 공동체 속에서 해답이 있다. 여성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서 집단의 힘을 조직화하고 성과를 쌓아 가는 경험은 그 어떤 100가지 논쟁과 설득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이러한 여성들의 모범의 전파는 간접경험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회의 여성들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의 질서에 깊이 편입되어 있고 경제적 자립이 부담이 커서 여유가 없다고 할 때 청년 여학생들의 모범과 선도하는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여학생운동은 그 존재에 기반해서 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운동은

많은 여학우들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 여학생운동은 일반적인 성모순에 입각에서 일반적으로 여성문제는 있어왔고 또한 그것은 여학우 개개인의 삶에 녹아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제까지 활동을 해왔던 것이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여성문제가 틀린것은 아니고 우리 여학우들의 삶에 분명히 모순으로 녹아져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여학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한 인간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방향을 가지며 여학생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더욱더 복잡해 지고 있고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여대생들은 그 속에서 어떠한 면이 질곡으로 내재되어있고 또한 어떠한 면이 여학우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여학우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해야만 한다.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운동을 힘있게 발전시킬 수도 없으면 우리의 과제들도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자주적 여성상

여학우들의 삶 속에는 여러가지 질곡들의 녹아들어 있고 그 고리가 다양하다. 그럼에도 그 고리들은 찾아 문제제기하고 극복을 위한 실천속에서 주인이 되는 계기를 창출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 그 고리들을 창조적으로 모색하고 능동적 도전과 실천적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여야 한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과정이 집단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역사인식과 비판의식은 여학우들의 약점인 사회성, 구조적 인식, 통찰력 등을 길러줄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제기되어야 한다.

1) 학생운동과의 관계 재정립 (지역연대성) ...야정당적 역할의한 관계로 되어야 방향 고민!

대항성 부계구체 / 중앙위가입이러한 프인력 많 학남이야

조직적 노선

단위 강화와 건설

●주체의 결의로 지역여대협 건설, 강화하자

지역마다 발전의 정도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전여대협 중앙상임위의 실정이다. 그리고 해마다 여대협의장을 선출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대협에 대하여 기층에서도 많은 고민이나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로 절실하게 다가오지 못한다. 그리고 여대협의 활동가가 지속적으로 여대협의 사업을 고민하고 못하고 맥이 끊기는 결과를 낳으면서 지역 여대협의 발전, 성장속도 또한 매우 느린 실정이다.

이제까지 전여대협 건준위의 활동이 미비했고 기층 총여학생회 단위 간부에게까지 여대협이 자신의 조직으로 다가가지 못하면서 자기 전망 속에서 여대협을 고민하지

이런 것 관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학생운동을 몇년씩 고민을 했었던 주체들조차도 다시 골간 학생회단위를 고민하게되는(지역총련 혹은 총학등)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지역여대협의 강화 발전을 위해서는 여대협 집행위의 건설이 절실하게 대두된다. 여대협 대표자들의 논의력을 보장하고 각 학교단위를 총화, 집행하는 집행위의 건설만이 의장을 보좌하면서 여대협다운 여대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부경여대협의 경우, 작년 경남지역까지 포괄하는 제1기 부경여대협을 건설해 내면서 지속적인 주체의 고민으로 여대협의 집행위가 다른 지역보다 튼튼하게 서 있는 상황이며, 그로인해 부경여대협 대의원 대회, 출범식등을 대중적으로 벌여 내고 있으며 정책단 연석회의(각 학교 정책에 준하는 주체들의 모임)등 여대협 강화의 방도를 끊임없이 강구해나가고 있으며, 여대협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 또한 지역 여대협의 건설과 함께 지역 여대협 집행위의 건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모범에 대한 실사를 통한 모범의 전파 또한 다른 지역 여대협의 발전을 견인해내는 기초가 될것이다.

중앙집행위의 문제 또한 지역여대협의 실정과 맥락을 같이 하며, 그 중요성은 무엇보다 우선한다 하겠다. 각 지역 여대협의 집행위를 총화하고 지도할 수 있고, 중앙상임위를 보좌하는 단위가 바로 중앙집행위인 것이다. 지도조직으로서의 전여대협의 위상을 올곧게 잡기 위해서는 중앙집행위의 건설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그것은 바로 주체의 문제로 귀결된다.

올해 건설 1기의 상황은 중앙집행위나 각 지역여대협 집행위의 실정상 체계가 굳건하게 자리잡히지는 않았지만 정책연석회의의 정례화와 중앙정책단의 지역정책단으로 순회의의 부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해 나갈 것이다.

* 당대여회 건설의 용의 + 자매학생회 모임 지도
의상 24년생안주도.

● 과여학생회(부) 강화

과여학생회(부)는 여학생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힘겹게 세워져도 대부분 자체적인 내용성 부족으로 사업계획이 없이 굴러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다음대를 세우는데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름뿐인 과단위 여학생회(부)로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그래서 과여학생회(부)의 올곧은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그 내용성 마련이 가장 관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내용성을 마련하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모범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지금 6대인 서여대협의 어느과 여학생회는 여성학 소모임을 통해 인자를 발굴하여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여학생회장을 선출하고 회지 발간, 여학생모꼬지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가지며, 과학우 전체를 대상으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지속적인 사업들을 고민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단위 여학생회(부)의 올바른 위상은 단대 여회(부)의 내실을 다지게 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총여학생회로 모여 튼튼한 여학생운동의 틀이 잡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여회(부)단위 사업의 전형 창출과 그 모범전파, 그리고 총여학생회의 지도

1) 소모임과 학생회... 차등적 가치 평가?

→ 여성학생회 여성. 동아리 여성. 동아리

★★★★★ 전여대협 강화

→ 여성학생회 (신임임원) · 소모임 동아리 연계.

내용 마련은 바로 여대협내에서 이뤄지고 또한 그 내용의 논의, 심화시켜나가는 것이 여대협의 과제라 할 것이다.

여성학생회 동아리 → 인자배양
소모임의 존재

● 소모임 · 학술 동아리

① 학생회 → (가장) 학생회 (방음) 여성학생회 동아리

소모임 동아리... 향상

모든 것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을 때 그것이 실천으로 담보되어지는 것이다. 여성학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회화 과정속에서 올바른 한 인간으로서 살아오지 못한 데에 대한 깨우침이 있어야 하는 데 가장 유력한 공간의 하나가 바로 여성학을 공부하는 소모임이다. 그런 면에서 소모임은 바로 여학생운동을 대중화시키고 여학생운동의 인자를 발굴해 내는 데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고 가장 핵심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소모임의 활성화로 부체계에서 회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전무한 곳에서 소모임의 활성화로 회나 부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모임의 활성화에 대한 중앙의 지속적인 고민과 단위 실사를 통해서 소모임 건설과 그 내용성의 부분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대중화

학술동아리도 또한 소모임과 같은 맥락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동아리 차원으로 총여학생회 산하 또는 전체 중앙동아리 산하로 여성학 학술동아리가 전국적으로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 아직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동아리의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학술동아리는 총여학생회 사업속에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의 내용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고 총여학생회의 사업을 간고하고 내용성 있게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모임과 마찬가지로 여학생운동의 인자를 낳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 → 가장 중요 대중화

그러므로 이 학술동아리도 전국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연구로 모범을 전파하고 학술동아리와 총여학생회의 강화에 복무하는 정책을 생산해 내어야 한다.

● 대중적 노선 ●

▶ 민족 대단결을 이루어 내는 데 앞장서자.

암울한 역사의 발자취속에서 가장 처절하게 짓밟힌 것이 바로 여성이다.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속에서 정신대 위안부 여성들이 그러했고 분단된 조국, 미제에 짓밟히고 있는 지금 제2의 정신대, 기지촌 여성들이 아직도 존재하며, 점령군으로 이 땅에 발을 디딘지 50년 온갖 특혜를 누리며 주인행세를 하고 있으면서 온갖 잔혹한 범죄와 퇴폐 저질문화를 유포하면서 민족을 그중에서도 여성을 가장 처절하게 유린하고 있다.

건설 1기를 맞이하는 올해, 전여대협 또한 민족사적 대전환기 속에서 결정적인 통일 국면을 창출해 내면서 외세에 의해서 여성이 유린당한 이 한반도의 역사를 마감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남북공동 연대투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 막아내고 정신대 문제 해결하자

여성계에서는 이미 정신대 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한 모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을 통해서 남과 북이 공히 공동연대 투쟁을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선도적으로 통일의 열기들을 모아왔다. 올해 3월에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의 4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제3차 아시아 연대회의를 열어내었다. 북한 대표단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발제문을 발송하여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었으므로 결과적으로 5개 나라의 의사와 연대를 확인한 회의였다. 사죄나 책임자처벌, 배상을 하지 않고 아시아 각 국을 다니면서 민간위로기금안을 받아 들이도록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을 혼동에 빠트리는 행위를 기만적으로 행하면서 도리어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꾀하는 일본을 규탄하고 토론과 결의 집회를 가졌다.

김영삼정권은 이러한 민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대일본 외교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않고서 '잘 해결 되어야 할 것'이라고만 하는 굴욕외교를 펼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크나큰 민중의 아픔을 외면한 김영삼정권의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를 반드시 규탄해 내야 한다.

전여대협에서는 작년 건준위 6기때 전여대협 통일선봉대를 통해 정신대문제 조속한 해결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음모 반대, 남북 공동연대 투쟁을 알리는 서명활동을 하여 국민들의 많은 호응속에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알려 나간바 있다.

그러나 이후 그 충화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정신대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쟁 해나가지 못하였다. 올해 전여대협에서도 정신대 문제가 단순히 국제 인권단체에의 청원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민족 대단결의 원칙속에서 남과 북이 연대해서 민간위로금으로 무마하려는 일본의 기만적인 작태를 분쇄하고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투쟁해 가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
투쟁방향
선봉대조직

제2의 정신대 기지촌여성을 유린하는 미군기지 몰아내고 민족자주권 실현, 통일 조국 안아오자.

정신대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지금 조국에는 아직도 외세에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제2의 정신대가 존재하고 있다. 올해는 분단 50년이기도 하면서 주한 미군이 온갖 특혜를 누리며 이땅에서 주인행세를 한 지 50년이 된 해이기도 하다. 미군들에게 가장 침해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기지촌이며, 바로 제2의 정신대가 바로 기지촌의 여성이다. 지금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게 되면 일제 식민지에서의 중군위안부가 한명이 몇개 중대를 상대했던 것처럼 '담요부대'라고 해서 기지촌 여성들이 훈련기지로 미군들을 상대하기 위해 가야 한다고 한다. 포주에 의해서 끌려 갈 수 밖에 없고 가서는 정신대 여성들이 당

했던 것 처럼 하루에 몇십명씩 미군을 상대해야하고, 콘돔을 거부하는 미군에 의해 임신을 하게 되면, 또다시 낙태를 해야하는 처절할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기지촌 여성의 인권유린 뿐만이 아니라 임대료 한푼도 내지 않는 우리 땅 미군기지에서 무차별 군사훈련으로 인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 미군부대 한국인 노무자들의 노예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에이즈, 마약, 음란물등 퇴폐저질문화가 거대하게 유포되고 있다.

기지촌 뿐만 아니라 미군의 횡포는 이 땅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얼마 전 세모녀 폭행사건 또한 이러한 일련의 미군의 횡포의 일부분에 불과하지 않는다. 한달에도 몇건씩 강간, 폭행,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미군범죄는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민족 자주권회복을 통한 통일국가를 이룩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전여대협도 끈질긴 미군기지 반환투쟁과 함께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투쟁들을 끈질기게 벌여가야 한다.

▶ 여학우들의 일상적인 정치의식을 높여나가는 **지자체 선거를 만들자.**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여학생운동의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원 20%할당제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건설의 위해서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여성의원 20% 할당제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인다는 의의는 인정하나 지금 실정에 있어서는 구호적인 측면이 없지 않고, 무조건 여성후보를 밀 수도 없는 실정 속에서 여학생운동은 이번 지자체투쟁에서 우리에게 맞는 투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여학우들의 일상적인 정치의식을 높여 내며 김영삼정권의 허구적인 여성정책을 폭로해 내면서 김영삼 정권을 심판하는 장으로 삼아야한다. 또한 각 지역 여대협은 지역의 사회여성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로 각 후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을 견제해 내고 민주적 여성후보가 있다면 후보 당선을 위한 활동들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간의 지역간의 가열찬 교류로 서로의 모범을 전파하고 대중운동의 정형을 창출하자.**

㉠ 기지촌 활동

서울,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지촌활동은 한국사회의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존재하는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기지촌의 여성의 삶을 접하면서 이 사회의 여성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수 있는 활동이다.

전국적으로 미군기지가 넓게 분포하며 그에 따라 기지촌도 산발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기지촌 활동은 의정부, 동두천 두레방이나 다비타의 집등 기지촌에 들어가 활동

하는 사회단체가 이미 존재하고 기지촌활동의 틀을 마련해 놓고 있는 서울지역, 경인 지역에서만 기지촌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기지촌 활동을 수행하고자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여대협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보장해 주기위해 이미 틀을 잡아가고 있는 선여대협, 경인여대협을 중심으로 기지촌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다른 지역 또한 아직 사회단체가 미치지 못한 기지촌의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탁아활동

기혼 여성들의 사회노동 참여 증가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문제는 어느 특수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우기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모순 속에서 직업, 소득, 주택, 교육 등 제반 생활 조건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민중 여성들에 있어서는 자녀양육의 사회화는 생존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사내 탁아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으며, 여성노동자들이 새벽에 출근, 잔업, 야근 등을 하는 경우는 더욱 자녀를 돌볼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고, 맡길 만한 곳이 없으며, 적합한 교육적 환경을 자녀들에게 제공해 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때 사회노동과 가사노동의 병행은 민중여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는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남녀관계에 의해서 여성에게 과중한 이중 삼중의 부담이 지워지며 부부간의 갈등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현재 급증하는 탁아소의 수가 이런 필요성들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런 빈민 탁아소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영리로 하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극히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시간 활동, 저임금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탁아소 교사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탁아 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후원회활동등으로 지역 탁아소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탁아활동이 제기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탁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탁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은 서여대협의 북부지구, 대경여대협, 충남여대협에 소속된 몇몇학교가 있다. 하지만 탁아활동이 단순히 학우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일만 해주고 올 경우, 봉사의 의미만을 가지게 될 때 탁아활동이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오류들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탁아활동하는 대원들의 교양과 탁아소 교사와의 내용성 준비가 요구되었다. 일만 도와주고 오는 탁아활동이 아니라 교양이나 토론등을 통해서 배우고 얻는 것이 더욱 많아지게 되면서 더욱 지속적으로 내실있는 탁아활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성의 부분에서 연구가 미흡하여 탁아활동을 하는 지역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다. 대경지역의 경북대의 경우 끊임없이 탁아활동의 정형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집행부내에 탁아활동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부서를 두고 탁아활동자 모임이나 후원회체계를 잘 꾸리고 있으며, 지역탁아소에 진출하신 선배님과의 간담회속에서 내실있는 탁아활

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범으로 탁아활동의 정형이 창출될 때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을 배워 지역에 맞게 탁아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학내 성폭력

계국주의 문화의 침투, 자본주의의 성상품화로 민족의 성문화가 더럽혀지면서 학내에서까지 성폭력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면서 쉬쉬하고 덮어두는 경향이 지대했으나 성폭력이 하나의 폭력이고 더욱 비열한 폭력으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리고 그런 심각한 범죄가 신성한 학원내에서 까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많은 총여학생회에서 학내성폭력 근절에 대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고민하고 있다. 작년 서역대협의 몇 학교에서는 학내 성폭력에 대한 여학우 설문조사작업을 실시했고, 그 속에서 학내 성폭력이 드러나지 않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심각하게 나타났다. 더우기 작년 우조교 사건이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수에 의한 성추행사건 또한 비밀비재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어떤 총여학생회에서는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하거나 상담전화를 마련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전역대협은 한국성폭력 상담소와 연계하여 각 총여학생회 성폭력 상담주체 1인씩 정도로 '성폭력 상담 교양학교'(가안)을 실시하고자 한다. 몇일의 교양학교를 통해서 성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지역 상담소와의 연계를 어떻게 할것인가 등 성폭력 상담 전반에 관한 개괄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전역대협 대표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진행할 것으로 제안한다.

㉠ 농촌활동 ?

농촌의 대대분의 인구는 여성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랜 기간 농활을 수행해왔지만 농활의 전체적이 기풍에 있어서 농촌사회를 변혁시킬 사람은 바로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농민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때문에 우리들 조차도 여성농민반 분반 활동을 내용성의 고민없이 단순히 어머니님들과의 오락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어머니들의 의조직화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좀더 자세하고 치밀한 연구와 조사로 어머니들의 농촌사회 변혁의 세력화로 하는데 농활을 최대한 활용, 발전시켜야 한다.

먼저, 여성농민반 분반활동에 대한 모범전파를 위하여 단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총여학생회 단위에는 농활을 어떻게 결합하고 있으면 군여농이 건설된 곳과 건설되지 않는 곳을 구분하여 군여농건설과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농민지변... 지각체(전)에 맞서 어떤 방법이 될수 있다.
 여성농민들의 지변에 대한 고민을 하자!
 (사학자들)

여기 자랑스런

한국 여학생운동을

책임지고 있는

1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대표자들이 있다.

☼☼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건국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송지연 / 92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이선희 / 92

부학생회장 박연희 / 92

광운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강혜원 / 92

산업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유지은 / 92

산업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유지은 / 92

삼육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수정 / 93

서울시립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유지은 / 92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오선희 / 92

--> 이상 동부지구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지은희 / 93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장 박은주 / 92

- 단국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진주 / 93
명지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조은경 / 93
서강대학교 여학생협의회장 박현주 / 92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은숙 / 92
부학생회장 이상아 / 92
홍익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전명희 / 92 --> 이상 서부지구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나영 / 92
승실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이민정 / 92
중앙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지연 / 92 --> 이상 남부지구

국민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보라 / 93 (가입 미확인)
서경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경자 / 92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이미경 / 92
한성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옥진 / 92 --> 이상 북부지구
-

☀☀ 경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지역 여대협 미건설)

-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주정희 / 93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공화연 / 92
수원대학교 총여학생회장 배경희 / 92
아주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조훈희 / 92
안양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현주 / 92

- 중앙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신은정 / 92
-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장 홍안나 / 93
- 협성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동희 / 93

ㄹ ㄹ 충청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아직 미건설)

- 과학기술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이은주 / 93
- 대전산업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은숙 / 92
- 목원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미영 / 93
- 배재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임소희 / 93
- 침례신학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권은혜 / 93

- 공주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혜영 / 92
- 단국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강미경 / 92

● ● 대구 경북 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 경북대학교 총여학생회장 박경아 / 91
- 부학생회장 / 92
- 경산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영숙 / 92
- 계명대학교 총여학생회장 백소라 / 92
- 금오공과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이미진 / 92
-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이양주 / 92
- 상주산업대학교 총학생회장 손미영 / 92

안동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현주 / 92

영남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복순 / 91

🌸🌸부산 경남 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경남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희정 / 92

경상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윤지연 / 92

경성대학교 총여학생회장 박대희 / 92

부학생회장 이승묘 / 92

동아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이세영 / 92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지영경 / 92

부산수산대학교 총여학생회장 박연진 / 93

울산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희영 / 93

인제대학교 총여학생회장 황은아 / 92

장원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이명숙 / 92

🌸🌸전북 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군산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예련 / 92

원광대학교 총여학생회장 박미희 / 92

전북대학교 여학생위원회 회장 조근희 / 90

전주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영미 / 92

전주한일신학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경임 / 92

💡💡 남 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광주대학교 중여학생회장 황복실 / 92

동신대학교 중여학생회장 이선숙 /

목포대학교 중여학생회장 김금자 / 92

서강전문대학교 중여학생회장 서예원 /

순천대학교 중여학생회장 신은하 /

여수수산대학교 중여학생회장 / 92

전남대학교 중여학생회장 이현아 /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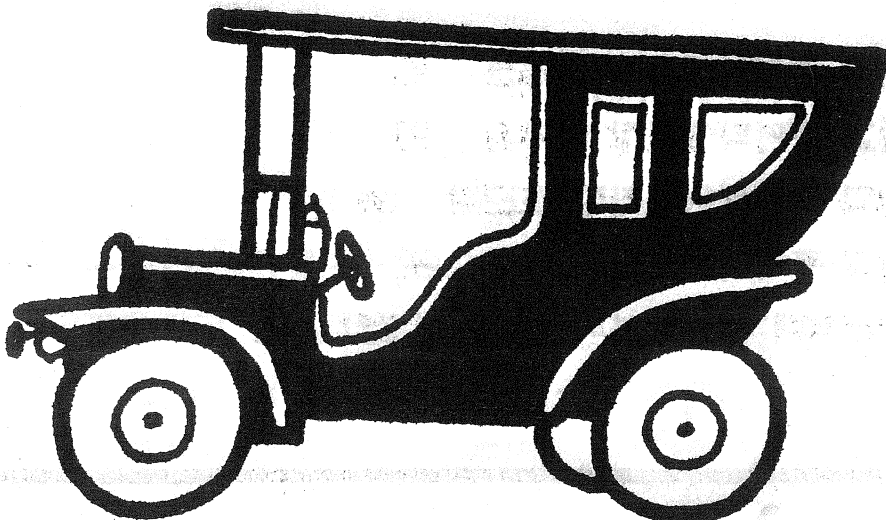
부학생회장 최연화 / 92

조선대학교 중여학생회장 김경자 / 92

호남대학교 중여학생회장 최찬란 / 92

● ● 제주지역

제주대학교 중여학생회장 이봉실 / 92



청년의 기상

김민수 중곡

Dm C F Gm A
 이 땅 청 년의 양심은 굶이 맹세 안 해 도
 가슴에 등물처럼 자라 애국의 한길로 간 아 이 땅
 청 년의 기상 은 겪은 려 고 애 서 도
 너 의 뒤를 이어 내 가 서 고 F #m7 A C A
 미 래 나 내 국 노 흥 만 / A Gm/E A - 7
 Dm C 가슴 하나로 분재의 대는 다
 보 라 우리 앞 에 비강 만물이 A 나 서 Dm 도 한걸
 음 러 나 가 리 라 이 게 바 른 청 년 이 다